

2

2018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Vol. 274





물치비치마켓 불꽃쇼

COVER STORY



추운 겨울을 뚫고 새봄을 부르는 복수초
(낙산사 보타전)



양양소식 · 274호

| 발행일 2018년 2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소식

Vol. 274

CONTENTS

희망양양

- 04 기획취재 양양전통시장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06 ISSUE&PEOPLE 알록 달록 희망을 선물하다.
노루페인트 두리상사 김재식 대표
- 0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오색석사

의기양양

- 10 뉴스 브리핑
 - 10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 11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가동
 - 12 양양 퓨전음악극 '손님' 올림픽 무대에 서다
 - 13 2018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대한민국 서프시티 양양,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운영
 - 14 양양군,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시에
 - 갈수기 한시적으로 설악(둔전)저수지 잉여 농업용수 지원
- 15 양양의 이모저모
- 16 의정소식
 -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오감양양

- 18 문득, 양양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그대에게_
죽도전망대&서핑
- 20 이게 최고자니 맛있는 한끼 해담마을 너비아니

열린양양

- 21 책이야기 모든 것의 기원 / 이달의 신간
- 22 정보꾸러미 2월 추천 일자리, 물질약 실천요령
- 23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양양 전통시장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옛말에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씨오쟁이 짊어지고 따라간다'는 말이 있다. 쫓대 없이 남의 생각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다음해 농사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씨나 종자까지 들고 따라나설 정도로 시장이 매력적인 곳이라는 의미도 숨어 있다.

영동 북부지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양양 5일장은 100년의 시간을 관통하여 지금 까지 이어지고 있다. 매달 숫자 '4'와 '9'가 들어가는 날짜에 열리는데 양양의 장날이라고 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볼거리와 살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가까운 바다에서 온 청정 수산물을 비롯하여 값싸고 신선한 농·임산물과 각종 곡물류, 생활 용품까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다양한 물건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살 맛나는 양양전통시장 장보기

저렴한 가격에 후한 인심을 맛보고 싶다면 양양 전통시장으로 가보자. 그렇다고 물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건을 고르고 가격을 흥정하는 재미, 정을 듬뿍 얻은 덤이 있어 전통시장에서는 마음까지 풍요로워 진다. 대형마트에서는 카트를 끌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품 숲을 누비고 다니다보면 당초 예정에 없던 지출항목이 수두룩하게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양 전통시장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을 아무리 누벼도 두손을 넘기지 않고 필요한 것만 구입하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 된다. 전통시장에서 쓰는 대부분의 소비는 지역상인들의 손을 거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 신선한 상품, 친근함 등 대형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먹거리 천국 양양 전통시장 먹방투어

양양전통시장은 먹거리 천국이다. 시골 인심이 듬뿍 묻어나는 향토 음식부터 방금 만들어 파곤한 튀김과 호떡, 어묵, 가마솥에 튀겨내는 옛날 통닭, 폭 삶아서 쫄쫄쫄쫄한 족발 등이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손님들의 발걸음을 끈다. 종일 돌아다녀 허기가 진다면 두손가득 무거웠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장터음식을 맛보며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져보자. 뜨끈한 국수와 고소한 부침개를 먹으며 두런 두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전통시장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배불리 먹고 돌아

서도 뽕튀기나 전통과자 같은 주전부리가 눈에 또 들어와 지갑을 열게 된다. 무심한 듯 투박하지만 정감어린 맛이 깃든 장터 음식 때문에 다음 장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할머니장터에서 정에 취하고 막걸리 장터에서 흥에 취하다

5일장이 설 때면 할머니들이 보파리 보파리를 들고 나와 장을 펼친다. 이곳이 바로 할머니 장터이다. 직접 키우고 다듬은 나물, 곡식, 야채 등 종류도 다양하다. 신선하고 좋은 물건을 직거래 할 수 있기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있다. 수북히 쌓아주는 덩은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정 많은 할머니장터를 지나다보면 이름만 들어도 흥이 넘치는 막걸리골목이 나온다. 기존 음식점 골목을 이용해 조성한 곳으로 음식점 앞에 간이 탁자를 배치해 장보면서 잠시 쉬며 막걸리 한사발로 목축이기에 안성맞춤이다. 막걸리골목에는 숨은 맛집이 많아서 입도 즐거워진다.



문화가 있는 양양 전통시장

왁자지껄 전통시장에서 조용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시장상가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아늑한 테이블과 벤치, 아기자기하게 연어와 송이 조형물이 꾸며진 연애공원과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음료를 착한 가격에 팔고 있는 문화카페가 있다. 카페 한편에는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북카페와 수유실, 물품보관실도 갖추고 있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다가 잠시 쉴 수 있다. 또한 양양전통시장에서는 상품권 사용도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으로 현금영수증도 가능하고 총 구매금액의 60%이상을 구매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 사용도 편하고 선물로도 인기가 좋다.

알고 즐기면 더 매력이 넘치는 양양전통시장.

살랑 살랑 봄바람이 불고 콧노래가 절로 나는 오늘.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양양전통시장에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추억을 쌓아 보자.

〈글·사진 : 편집부〉

/ ISSUE & PEOPLE /

알록달록 희망을 선물하다

양양두리상사 김재식 대표

양양의 17개의 초등학교 중 양양초등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학생수가 50명이하의 작은학교이다. 그중 몇몇 학교는 전교생이 10명 이하이며,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권고를 받기도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이 확산되는 요즘 관내 작은 학교에 알록달록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양양두리상사 김재식 대표를 소개한다.

알록달록 희망을 입혀주는 페인트 아저씨

양양에서 태어나 잠시 부산에 갔다가 양양중·고를 졸업한 후 노루표 페인트와 강릉 우리도건을 운영하던 김재식 대표는 2013년 폐교 위기학교 이야기를 보고 양양 회룡초등학교를 찾게 되었다. 운동장을 가득 메워야 할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진 학교는 페인트가 군데 군데 떨어지고 곳곳이 낡고 녹슬어 마지막으로 보수공사를 한 게 언제 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이기에 시설물 보수도 번번히 무산되고 결국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 학교가 없어지면 1시간을 걸어서 통학해야 할 아이들을 김재식 대표는 외면할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라고 생각한 김재식 대표는 재능기부로 도색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365일 무지개를 띄우는 학교를 만들다

“와 정말 예쁘다! 꼭 외국학교 같아요” 손양의 송포초등학교를 보며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송포초등학교가 폐교 권고 대상이 되었을 때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지역사회 동문들은 폐교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중 하나로 김재식 대표에게 페인팅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도 황폐해진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아난다”는 간절한 요청에 김재식 대표는 작은 예산으로는 부족했던 시공비의 대부분을 자비로 대어 외부에서 내부까지 꼼꼼히 페인팅하고 학교의 개성을 살려 지금의 아름다운 송포초등학교를 만들어 냈다. 학생들은 산뜻한 학교로의 등교를 즐거워하기 시작했고, 학교에 희망이 생기자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러한 많은 노력으로 학생수가 늘고 지금의 송포초등학교는 폐교의 위기에서 벗어나 특성화된 작은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평, 현성, 조산, 현북초등학교 등 양양의 9개의 작은학교들을 찾아 학교만의 특색을 살려 365일 무지개를 띄우는 학교를 만들었다. 그는 학교마다 특색을 살려 주제를 가지고 페인팅을 한다. 상평초등학교공수전분교에는 무지개를, 상평초등학교와 송포초등학교에는 학교 이니셜을 살려서 디자인하였으며 현북초등학교의 디자인에는 ‘나는 행복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는 주말에 작업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바쁜일정을 쪼개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월요일 등굣길 아이들에게 멋진 학교를 깜짝 선물하기 위해서란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연휴 3일동안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를 찾아 건물 내·외부를 말끔히 정리하여 주었다. 고급 페인트로 학교 상징물과 학교만의 특성을 살려 디자인하였다. 아이들에게 잊을수 없는 동화속 학교를 선물하여 준 것이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한다. “필요한곳에 쓴 걸요. 통장의 잔고를 비우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마음도 가벼워져요.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는 5년을 주기로 리터치를 해주어야 한다며 무지개가 지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것을 당연한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상평초등학교 공수전분교



광정초등학교



상평초등학교



송포초등학교



조산초등학교



현북초등학교



현성초등학교



회룡초등학교



인구초등학교임호분교

끝나지 않는 재능기부

김재식 대표가 재능기부를 이어가는 이유는 두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주는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컬러의 힘을 전파하는 것이다.

첫 재능기부는 학교 측에서 요청한것도 아닌데 그가 먼저 나서서 페인팅을 제안하였고, 설득하여 이루어낸 것이며, 앞으로도 그의 재능기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어딜 가든 학교부터 눈에 들어온다는 김재식 대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특히 양양의 멋진 경치 속에 있는 학교라면 더더욱 그래야죠. 그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꿈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색을 입힌 학교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난다.

〈글·사진 : 편집부〉



오색석사(五色石寺)는 통일신라 때 무염선사가 12세에 출가한 곳이다!



오색석사

오색석사에 대한 오해(誤解)와 진실(眞實)을 살펴보다.

세간(世間)에 오색석사는 가지산파(迦智山派)의 개산조(開山祖)인 도의국사(道義國師)가 창건한 사찰이라고 한다. 전설에는 오색석사 후원(後園)에 한 그루 나무에 다섯 가지 색의 꽃이 피었으므로 절 이름을 오색사라 하고, 이곳의 지명을 오색리라 하였으며 절 어귀에 있는 약수도 오색약수라 하였다고 한다.

『현산지』에는 오색천 상류에 현곡사(玄谷寺)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사되었다. 이곳에 탑(塔)이 현존하여 오색석사(五色石寺)로 추정 된다. 전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관장 정영호)은 누군가 이곳을 성국사(城國寺)라고 불렀다 하나 사찰규모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했으며, 이 절을 찾아가 고증(考證)을 한 뒤 『오색석사(五色石寺)』로 사명(寺名)을 쓰도록 하였다고 양양군지(2010), 불교 편에 밝혔다.

통일신라시대 학자인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12세(868)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18세의 나이에 빈공과(賓貢科)에 장원으로 급제함] 선생이 지은 『고운집(孤雲集)』에 의하면 설악산(雪嶽山)의 “오색석사는 오색돌이 있는 고로 이름 한 것이다.(五石寺有五色石故名也)”라 하였다.

오색석사는 창건 이후 신라시대의 선찰(禪刹)로 성주산파(聖住山派)의 개산조(開山祖)인 무염선사(無染禪師)가 선덕왕 5

년(784)인 12세에 이절에서 출가하였다고 『고운집(孤雲集)』과 『조당집(祖堂集)』에 각각 기록하고 있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삼층석탑(보물 제497호)을 비롯하여 석사자(石獅子)와 대석(臺石)·기단석·탑재(塔材) 등이 산재되어 있고, 최근에 지은 인법당(因法堂) 1동이 있다.



삼층석탑



오색석사와 삼층석탑



삼층석탑안내문



북원기념탑비



불당



입구 돌계단

이곳에서 출가하신 무염선사(無染禪師)는 어떤 분인가?

무염선사는 신라 애장왕 2년(801)에 출생하여 진성여왕 2년(888)에 입적한 당시 제일의 고승이었다. 성은 김씨, 호는 무량(無量), 또는 무주(無住)라고도 한다.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 8대조이며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뛰어나 해동신동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이때에 이곳 법성선사(法性禪師)는 당나라에서 소승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왔으며 무염에게 한문과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당나라 유학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그 후 무염은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려 했으나 도중 풍랑으로 배가 흑산도에 기착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헌덕왕 13년(821)에 다시 정조사(正朝使)를 따라 당나라에 가서 성남산(城南山) 지상사(至相寺)의 화엄강석(華嚴講席)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때 당에서는 이미 선종(禪宗)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무염도 불광사(佛光寺)의 여만(如滿)을 찾아가서 선법을 문의하였다.

무염을 맞이하여 선법을 논한 뒤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와 같은 신라의 젊은이는 본적이 없다. 훗날 중국이 선종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신라로 가서 선법(禪法)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는 것이다.

무염은 마곡산의 보철(麻谷山寶徹)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 법맥을 이어받고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독한 사람, 병고를 겪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다. 이렇듯 10여 년간 보살행을 실천하니 그의 이름은 당나라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무염을 동방의 대보살이라 불렀다고 한다.

신라 문성왕 7년(845)에 귀국하였는데 이때에 왕자가 성주사에 머무르기를 간청하였다. 이후 무염은 성주사에 주석하면서 이 절을 구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산문의 근본도량으로 삼아 40여 년간 교화하였다. 이 같이 최고의 고승인 무염이 출가한 역사적인 사찰이 양양의 오색석사(五色石寺)이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폐기물 처리비 절감 위해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환경자원센터 반입 쓰레기량 증가로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늘어
2015년 11,465톤 → 2017년 13,055톤, 처리비용 58억원 → 64억원

가정·업소에서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줄이기,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필요

우리군이 생활쓰레기 증가로 매년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예산이 낭비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군 환경자원센터 소각로의 경우 하루 28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지만, 몇 년 전부터 반입 쓰레기가 이를 크게 웃돌아 미처 소각하지 못하고, 압축포장을 통해 인근 시군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2015년 11,465톤에서 2017년 13,055톤으로 14%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처리비용이 58억원에서 64억원으로 증가해 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살펴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병류, 캔류, PET병, 종이류 등이 20%이상 포함되어 있어 분리수거만 철저하게 진행된다면 불필요한 쓰레기 소각을 줄일 수 있다.

이에 군은 폐기물 위탁처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기반으로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나섰다.

먼저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로 소각시설의 처리효율성을 저하

시키고, 시설 노후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 중이다.

우선 관내 아파트 18개소(3,387세대)와 낙산지구 음식점 7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소각량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 위주로 매년 3개소 이상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한편, 올해부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추진해 읍·면당 1개소씩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 6개소에 거점 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한다.

또 종량제 실천 우수마을에 6백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 시책을 추진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간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실정, 분리배출요령이 포함된 전단지 1만부를 제작해 각 가정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문의 :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670-2183)



양양군,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가동

2월 5일 봄철 산불예방 발대식

산불진화대 45명·감시인력 228명 현장 배치,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군이 산불 진화 및 감시 인력을 증원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양양군의 경우 지난 1월 22일, 5cm 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하고는 눈 소식이 없어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른 2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이달 1일부터 관내 산림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산불 발생의 고리를 원천봉쇄하고, 산불감시인력과 전문진화대원을 증원 편성해 통합지휘 및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연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당초 23명에서 45명으로 늘려 4개조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평소 산림 연접지 인화물 제거와 공동소각, 기동단속 등 예방임무에 주력하다가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한다.

이와 함께 산불유급감시원 104명, 이장단 124명을 지난 5일 안전교육 및 발대식을 시작으로 산불취약지역에 상시 배치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산불 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4월부터는 야간 감시인력 86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만월산과 석벽산, 삼발이재 등 6개 읍면 8개 지역에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속초시·고성군과 함께 산불진화용 대형헬기를 임차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민관군 협업도 강화된다. 군은 소방서와 국유림관리사무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군(軍)병력과 공무원·사회단체 등 민관군 2천여 명이 산불진화에 참여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방화죄, 산림실화죄가 성립되어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문의 : 산림복지과 산림보호담당(670-2714)





C 양양 퓨전음악극 '손님'

평창동계올림픽 무대에서 한국의 올림을 선사하다
2월 18일 오후 1시 강릉아트센터에서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성황리 공연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Tel. 033-670-2728

양양문화예술단(단장 홍이표)이 연출하고 양양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문화콘텐츠 '손님'이 지난 2월 18일 오후 1시 강릉아트센터 무대에서 한국의 올림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은 동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올림픽 이후에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문화올림픽의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와 강원문화재단이 올림픽 무대에 선보일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진행한 '1시간 1문화예술 공연평가'에서 당당히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이번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되었다.

'손님'은 한 노인의 삶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음악극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동골 상여소리(제25호)와 상복골 농요소리(제26호), 전통민속놀이인 탁장

사놀이 등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해 만들었다.

양양지역의 대표 특산물이자 회귀의 상징인 연어를 한 노인의 삶과 죽음에 빗대어 표현해 봄·여름·가을·겨울로 순환하는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며 살아온 양양군민들의 삶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강현면 상복골과 현남면 수동골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주민 30여명을 비롯해 전문배우와 악기연주자 등 60여명이 공연에 참여했다.

농요 기능보유자인 조광복씨를 비롯해 상복골 주민들이 농요를 부르며 모심기 장면을 연출하고, 김용우 보유자와 수동골 주민들이 상여소리를 통해 주인공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등 작품 주요장면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날 공연에서 실제로 상여를 메고 노인의 죽음을 노래하는 장면은 관객들로부터 깊은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냈으며 감동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C 2018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거주지 불일치, 무단 전출입, 허위 전입 등 일제조사



문의 허가민원과 민원행정담당 Tel. 033-670-2241

우리군이 오는 3월 말까지 '2018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전(全)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해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

의 거주 여부, 복지부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감사원 감사결과 재외국민 거주자의 출국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제3자의 무단전출과 허위전입 의심자 등 각 읍·면에 접수된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50%에서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C 대한민국 서프시티 양양,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운영한다



도립공원 해제에 따라 공원관리사업소 폐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한시 운영

문의 자치행정과 조직인사담당 Tel. 033-670-2120

서프시티(Surf City)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군이 조직개편을 통해 한시기구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를 운영한다.

지난 2016년 12월, 낙산을 비롯한 우리군 해안의 8.682km² 면적이 도립공원 구역에서 지정해제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늘어나는 해양레포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여름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특히 우리군은 최근 큰 인기를 얻는 서핑을 비롯해 수산양 요트마리나 요트체험과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59.57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매년 여름 낙산 해변을 비롯한 21개 해수욕장이 개장·운영되고 있어 도립공

원 해제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운영해온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한편, 도 승인을 받아 한시기구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마쳤다.

5급 사무관이 소장을 맡아 해양레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해양레포츠담당과 해변관리담당 2개 팀이 운영되어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해양레저 업무 외에도 해변운영 및 환경정화, 해변시설물 관리 및 운영,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 유치, 해변지역 불법행위 및 금지행위 지도·단속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수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시에 설악(둔전)저수지 농업용수를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 지원

우리군 지역(장산곶, 회룡곶 등)의 영농에 사용하고 남는 농업용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

우리군은 최근 상수원 부족이 심화되어 재난 수준에 이르는 인근 속초시의 협조요청에 따라 설악권 3개 시군과 협의하여 갈수기에만 한시적으로 설악저수지의 농업용수로 활용할 충분한 수량을 남겨두고 농업용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2월 8일 설악권 3개 시군 현안사항 상생 협력회의 개최, 2월 19일 속초시장, 속초시의회의장이 양양 군의회, 양양군번영회, 양양군을 연이어 방문, 뒤이어 2월 20일 강현면사무소에서 농업용수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악저수지의 농업용수를 대조평을 통과하여 쌍천으로 공급하는 임시관로 공사 시행에 동의를 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물 부족으로 재난 상태에 이른 속초시민을 위해 상생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군에서는 이번 갈수기에 한하여 설악저수지의 농업용수 중에서 우리군 지역(장산곶, 회룡곶

등)의 영농에 사용하고 남는 농업용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설악저수지의 저수용량은 만수위로 우리군은 영농에 필요한 물을 제외한 물을 향후 이어질 갈수기에만 1일 6천 톤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대조평까지 임시 취수 및 관로시설 설치와 원상복구비를 모두 부담하고, 쌍천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양양군 지역에 대해서도 마을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의 용수공급으로 강현면 지역의 영농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양양군, 속초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공동으로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보상하고 강현면을 포함한 양양군 농산물 우선 구매와 향후 대조평 물리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군 젓줄인 남대천 물이나 생활용수(원수)는 지원하지 않아 영농피해 시 지원중단 및 속초시·농어촌공사·양양군 공동으로 영농피해 조사위원회 구성후 속초시가 보상

우리군이 이같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산불, 수해 등 어려울 때 서로 돕는 환난상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번 갈수기에 한시적으로 설악저수지의 남는 농업용수만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젓줄인 남대천 물이나, 생활용수(원수)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우리군은 속초시의 가뭄 피해와 관련된 지원내용과 절차는 군민의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공개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원암저수지의 남는 농업용수를 1일 1만 톤 씩 속초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설 연휴기간에는 하루 13톤의 정수를 지원했다. 또한 인제군에서도 2월 24일까지 매일 정수된 물 78톤을 속초시에 지원하는 등 설악권 시군의 상생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Tel. 033-670-2521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산불없는 푸른 손양면 만들기 산불감시 발대식 실시(2.1)
2. 현남면새마을 부녀회 추운 겨울 이웃들을 위하여 위문품 전달(1.31)
3. 서면 용천리 '정족사' 손양면사무소에서 불우이웃 위문품 전달(2.13)
4. 건강한 겨울 보내기! 보건소 농한기 체조교실 운영(주 2회)
5. 브라보 실버! 양양군노인회정기총회(2.8)
6. 올해도 풍년! 쌀전업농 양양군연합회 연시 총회(2.1)
7. 물치비치마켓 강현면민속보존회 농악시연 (2.10)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난 2월 19일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폐지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주요 안건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 하였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총8건의 조례안 중 7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다.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제철 위원장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향후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함에 있어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홍규 의원은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며,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김정중 의원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를 설치함에 있어 명확한 사무 분장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낙산 해수욕장과 타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분장사무의 명확화를 통해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하였다.

진종호 의원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하여, 최근 가축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의 일환으로 수의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은 필요해보이며, 수의직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인 업무 조정을 당부하였다.

이영자 의원은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SNS 홍보기자단이 우리군 홍보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군 홍보를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콘텐츠 생성을 위해, SNS 홍보기자단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요청하였다.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에는 익명으로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정례회 등 회기가 실시되면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를 통해 실시간 IP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니 많이 청취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그대에게

죽도전망대&서핑

어떤 여행은 '문득' 시작된다. 문득 떠오르는 풍경, 문득 생각나는 추억, 문득 떠나고 싶은 충동. 새 직장, 새 학기 또는 새로운 도전과 선택 등 인생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지금. 마음은 희망찬 기대로 한껏 들뜨고,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도 섞여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문득 떠나고 싶어졌다. 그리고 우연히 '죽도'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죽도 전망대, 탁 트인 푸른 동해가 발아래

죽도는 현남면 인구항 바닷가에 있는 해발 100여 미터 높이의 야산으로,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어 죽도라고 불리운다.

지금은 대나무 대신 소나무가 뾰뾰하게 들어서 있는데,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산책로가 기암절벽과 어우러지며 멋진 풍경을 선사한다. 산책로를 돌아보고 죽도정에 오른다. 북쪽에는 죽도 해변, 남쪽에는 인구 해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죽도 전망대로 발길을 돌린다. 숲이 틈까지 차오를 쫘 4층 전망대에 도착한다. 혹시나 하고 오른 죽도 전망대, 눈 앞에 동해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과연 잘해 나갈 수 있을까?' 탁트인 풍경속에서 고민도, 불안도 훌훌 털어 버리고 크게 바다공기를 들여마셔 본다.



수산항 전망대



남애항 전망대



하조대 전망대



파도속으로.. 서핑의 메카 죽도

멀리 거센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파도와 어우러진 그들의 모습은 역동적이고 도전적으로 보인다. 양양의 죽도해변이 서핑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얇은 수심과 파도 때문이라고 한다. 초보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 해안 가까운 곳에는 입문자들이 먼 바다에는 고수들이 파도를 즐기고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서핑에 도전해 본다. 1시간의 이론수업과, 1시간의 실습 그리고 꿈에 기다리던 입수시간. 넘어지고 수 없이 물을 먹지만 포기 할 수 없다. 연습과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만나는 파도. 드디어 파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른다.

해질 무렵 죽도의 해변을 걸어본다. 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문득 떠난 죽도바다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키워드로 보는 Tip

양양 해변 전망대 -

- ① 수산항 전망대 : 수산항 뒷산 정상인 옛 봉수대 자리에 세워진 수산항 전망대에 오르면 남쪽으로는 하조대 남매항, 북쪽으로는 낙산물치항까지 조망할 수 있어 예로부터 해안 경관을 볼 수 있는 명소로 꼽혀 왔다.
- ② 남매항 전망대 : 1980년대 추억의 영화 '고래사냥' 촬영지로 유명한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로 꼽히는 양양 남매항 기암절벽에 위치한 전망대이다.
- ③ 하조대 전망대 : 일출명소로 유명한 하조대에 위치한 등대 모양을 한 스카이 워크로 전망대에 오르면 동해를 가장 가깝게 만 날 수 있고, 암석해안과 기암절벽 푸른 동해를 한 눈에 전망할 수 있다.

서핑 명소 양양의 죽도해변부터 설악해변까지 양양의 해안선을 따라 12개의 해변에서 40여개의 서핑레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4계절 내내 서핑체험이 가능하며, 초보자에게는 파도가 낮은 죽도해변과 동호해변을 추천하며 파도가 높고 잦은 기시문해변은 마니아들에게 추천한다.

이기(이게) 최고자니!

맛있는 한끼 해담마을 너비아니

모든 엄마의 고민 '오늘 반찬은 뭘 먹지?'
바쁜 아침, 지친 저녁 매일 걱정하는 반찬
마트의 냉동식품을 매일 먹이기에는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고, 매 끼니 손 수 만들기에는 하루가 너무 힘든 엄마들을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양양의 너비아니를 소개합니다. 냉동실에 넣어두고 반찬 없는 날 너비아니 찬스를 사용해보세요.



진정한 밥도둑 너비아니

달짝지근 하면서 알맞게 양념이 베인 너비아니는 최고의 밥반찬으로 손꼽힌다. 궁중식 불고기로 알려진 너비아니는 고기를 칼로 다져 양념하여 넓적하게 구워낸 음식이다. 너비아니라는 이름은 고기를 너뒸 너뒸 썰었다고 붙여졌다고 하는데 시초는 상고시대부터 내려왔던 고기 구이요리인 맥적에서 부터로 보고 있다. 조선 중기까지 궁중에서 먹었으며, 조선 후기에 조리법이 널리 퍼지면서 돼지고기를 사용하거나 조리과정을 줄인 다양한 조리법들이 등장 하였지만 여전히 집에서 만들어 먹기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건강한 명품버섯 해담마을 너비아니

산과 산 사이에 해를 담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양양의 해담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과 서림리 산자락에서 채취한 송이버섯, 능이버섯 그리고 생고기를 갈아서 너비아니를 만들었다.

해담마을 너비아니는 인공감미료, 인공색소, 화학첨가물,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양질의 버섯너비아니의 맛을 살리기 위해 과일과 꿀을 원료로 소스를 만들고 국내산으로 선별된 냉장육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고기맛이 난다. 또한 육질과 버섯의 식감을 고려하여 해양심층수 소금을 사용하고 빵가루가 아닌 찹쌀가루를 첨가, 천연재료로 맛을 낸 건강먹거리이다. 해담마을 너비아니는 종류도 다양하여 취향에 맞게 골라먹을 수 있다. 버섯너비아니로는 송이버섯, 표고버섯, 능이버섯 너비아니가 판매중이며, 최근에는 산채너비아니인 곤드레, 엄두름, 취나물 너비아니가 새로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맛있는 한끼 너비아니

너비아니를 먹을때는 해동 후 후라이팬에서 약한불로 10분동안 서서히 굽는 것이 좋다. 이때 식용유를 약간 두르면 노릇 노릇 먹음직스럽게 구워진다. 센불로 조리하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하며, 여러번 뒤집지 말고 살짝 눌렀을 때 즙이 나오지 않을 때 까지 완전히 구워야한다.

이렇게 구워진 너비아니는 밥한공기와 김치만 있다면 든든한 한끼가 되고, 술안주로도 안심맞춤이다. 캠핑이나 야유회를 나갈때 준비하여 숯불에 구워먹어도 간편하고 맛이 좋다.



Tip 구입 : 양양몰(<http://www.yangyangmall.co.kr> 양양군 농 · 특산물 직거래 쇼핑몰) ☎670-2704

책 이야기**예일대 최고의 과학 강의**

하루하루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의 바탕이 되는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비롯되었고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이 책은 예일대학교에서 지구물리학을 가르쳐온 저자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한 세미나의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최초 우주의 탄생을 다룬 1장부터 오늘날 인류와 문명을 기술한 8장까지 원인과 결과의 순차적 형태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생성된 후 별과 행성, 그것들의 집단인 은하가 만들어지는 모습과 그 과정으로 생겨난 태양계, 그 구성원인 지구를 다룬 후, 지구 내부에서 생명체가 태어나는 메커니즘, 그리고 현시대 지구의 주인을 자처하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138억 년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우주물리학으로 출발한 여정은 지구의 내핵까지 깊숙이 다룬 후 생물학적, 화학적 분석을 거쳐 지금 이 책을 읽는 우리의 실존 근거까지 설명합니다. 아득한 우주의 먼지로부터 만들어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찰나의 존재이지만, 이 '모든 것'을 깨우친 인류의 일원임을 새삼 자각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책속 밑줄 긋기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과 에너지의 70%는 암흑에너지이고, 25%는 암흑물질이 차지하고 있다. 별과 행성, 인간 등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은 나머지 5%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은하와 같이 큰 규모의 우주에서 작용하

모든 것의 기원/
데이비드 바코비치 지음/
책세상/2017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전체를 보는 방법
존 H. 밀러 지음, 에이도스, 2017
-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정모 지음, 바들비, 2018
- 랩걸
호프 자런 지음, 알마, 2017

기 때문에, 인간의 한정된 감각으로는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또는 커피를 따를 때 작용하는 중력을 느낄 뿐이다. 만일 우리의 몸이 벌레나 미생물만큼 작아진다면 중력보다 전자기력을 강하게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작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전기력과 마찰력, 표면장력 등은 모두 전자기력에 속하기 때문이다(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천장에 붙은 채 기어가는 개미에게 중력은 있으나 마나 한 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거시적 규모에서 볼 때 벌레와 비슷한 존재이다.』(p. 40)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채사장 지음/ 웨일북스/2017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즉시 타인과 세계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저자는 낯설고 두려운 생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관계의 인문학을 세심하게 펼쳐 보입니다.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관계라는 거대한 주제로 수렴해가며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고 우리가 언젠가 만난다는 신비로운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그림**

전지은 지음/비즈니스북스/2017

성공은 스펙이나 환경 차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 끈기에서 비롯된다. 무엇을 하든 심증을 잘 내고 포기도 잘하는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림을 알고 마음에 새기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스스로 깨닫는 노력의 힘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춰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담았습니다.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 2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푸른하늘환경(주)	1명	전기산업기사 기계기사	09:00~18:00 (주5일)	연2,200만원 이상
	1명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소지자)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 이상
서울시니어스타(주) 오색그린아파트호텔	1명	회계사무원 (자격증소지자)	09:00~18:00 (주6일)	월220만원 (협의)
송천역마을 영농조합법인	1명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58만원 이상
설악환경산업	1명	영업원	08:00~17:00 (주5일)	월200만원 이상
메종드메르펜션	1명	룸메이드	08:00~17:00 (주5일)	월170만원
낙산요양원	2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 이상
네네치킨 (양양점)	1명	배달원	18:00~24:00	시급7,530원
주교원 스위트호텔 낙산	1명	룸메이드	08:30~17:30 (월6회휴무)	월170만원
주식회사 대양농수산물	5명	어패류 단순노무원 (조개선별 및 포장)	09:00~18:00 (주6일)	월170만원 이상(협의)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2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낙산요양원	1명	간호사(조무사)	주40시간 09:00~18:00	협의후
장유종합건설 양양국제공항호텔	1명	룸메이드	주5일 09:00~18:00	월 160만원 이상
북청산업영어조합법인	5명	생산직	주5일 09:00~18:00	월 157만원 이상
주온세미로라이프	4명	포장원	주5일 09:00~18:00	월 160만원 이상
주대양농수산물	5명	생산직	주6일 09:00~18:00	월 170만원 이상
한우랑송이랑	1명	출세방원	주6일 09:00~21:00	월 180만원 이상
송천역마을영농조합법인	1명	사무원	주5일 09:00~18:00	월 158만원 이상
효담노인복지센터	1명	재가요양보호사	주5일 1일3시간	시급 10,000원 이상
골든에스앤씨	2명	그늘집판매원	주6일 09:00~21:00	월 185만원 이상
	5명	룸메이드	주6일 08:00~18:00	월 200만원 이상
	3명	웨이터, 웨이츄리스	2교대근무 6시~15시/11시~22시	월 200만원 이상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8년 2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018 봄철 산불조심 기간, 함께해요! 산불 예방

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합시다!

- 산림인접지에서의 논 · 밭두렁 태우기, 고춧대 · 폐비닐 등과 같은 영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태우다가 큰 산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산림인접지에서는 허가 없이 소각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맙시다.
- 부득이 논 · 밭두렁, 영농부산물을 소각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에 마을단위로 신고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 산행을 할 때는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라이터, 취사용 버너, 성냥 등과 같은 화기물질을 절대 휴대하지 맙시다.
-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산림관서 등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합니다.
- 주위의 정신 질환자나 노약자가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놓거나, 인화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특별히 보호 · 관리합니다.
- 마을 주변의 산림은 마을주민 모두의 생활 터전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책임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운 사람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군 산림부서나 읍·면·동 사무소, 소방관서(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산불방지대책본부 033) 670-2424

**양양국제공항
무료셔틀버스 운행 안내**

- 운행구간
양양터미널 동측 버스승강장
(파리바게트앞) ↔ 공항1층
1번게이트 앞
- 출발시간
· 양양터미널
항공기 출발시간 70분전
· 양양공항
항공기 도착시간 30분 내외
- 운행노선
국내선(김해, 제주)만 운행
- 문 의 처
문화관광과 (033-670-2251)



급수공사 시행 신청 안내

□ 공사시행 범위

- 단독주택 : 배수관~수도계량기(대지경계선 3m이내)
- 공동주택 : 배수관~주수도계량기

□ 신청방법

- 상수도사업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구비서류

-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 건축물 허가 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허가서
- ※ 주변 토지 및 타 급수시설 사용시 시설 및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 업무처리 흐름



□ 문의 : 양양군상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033-670-2692

2018년 직불금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 2. 1. ~ 4. 20.(논이모작 직불금 2.1~3.9.)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로서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1년이상 경작 사실 증명, 1,000㎡이상))

□ 등록신청서 제출

- 2017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 등록 신청서만 제출
- 전년도 등록자가 아닐 경우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대 상농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접수장소 : 관할 읍면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문 의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직불제 담당(033-670-2864)

□ 읍·면별 집중접수 기간 : 2017. 2. 19 ~ 4. 6일, 09:30~16:00운영

- 강현면 : 2월 19일,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 현남면 :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3월 2일
- 공동접수 제외 기간 :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 양양읍 :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 손양면 :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2일
- 현북면 :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3월 30일
- 서 면 :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새로운시작, 브라보 실버!

어깨동무 어르신 문화예술단 신규단원모집

예술단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예술단원이 되어 함께 활동해 주세요~

□ 참여대상 및 방법

- ① 만 60세 이상 문화예술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어르신
- ② 양양군노인복지관 회원 가입
- ③ 실버예술단 신청(간단한 오디션 후 예술단 참여)

□ 모집기간 : 상시

□ 모집강좌 : 댄스스포츠, 실버악단, 오카리나, 합창단

□ 접수상단 : 양양군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033-673-2685~6)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개선

*'18년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확 줄어듭니다.

□ 노인외래정액제란?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일정한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문제점

진료비가 15,000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이 30%로 고정되어 약제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처치 등이 들어가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일때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진료비 총액이 16,000원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4,800원으로 쉽게 처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 개선내용

구분	기존 본인 부담금	구간	개선 본인부담금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본인부담 30%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20%
		25,000원 초과	30%
약국		10,000원 초과 ~ 12,000원 이하	20%
		12,000원 초과	30%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15,000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 1,500원

※ (약국) 10,000원 이하일때 1,000원

◆ (사례) 올해 65세의 어르신이 의원에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아 진료비가 2만원이 발생했다면 이전에 진료비의 30%인 6,000원, 개편 이후엔 진료비의 10%인 2,000원을납부하면 됩니다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 033-639-9111

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홍보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모두가 참여하여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입니다.

우리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기간** : 2018. 2. 5(월) ~ 4.13(금), 68일간
- **진단주체** : 양양군, 시설관리주체(민간)
- **진단대상** : 양양군 안전관리 대상시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 (건축 시설) 지진 실내구조소, 학교시설,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 (생활·여가) 유원시설, 야영장, 청소년 수련시설, 국립공원, 낚시어선 등
 - (환경 및 에너지) 전력시설, 상하수도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 (교통 및 교통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사도시설, 여객선, 저반침하 지역 등
 - (산업 및 공사장) 고위험 사업장(조선업, 건설업, 건설기계 등)
 - (보건복지·식품) 의료기관, 복지시설, 식품-의료 제조·판매업체 등
 - (기타) 금강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
- **진단방법** :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 (안전점검) 민관합동점검,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등
 - (안전신고) 안전신문고로 통한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
- **진단내용**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안전관리실태, 법·제도 등
-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670-275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최저임금 사업장 4대보험료 전액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2월
- **접수기간** :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신청
- **지원대상**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조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가입 원칙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
 -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자를 원칙으로 지원
- **지원내용** : (정부지원 제외) 사업장 부담분 4대보험료 전액
- **문 의** : 경제도시과 033) 670-2978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1차 신청안내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접수기간** : 2018년 4월1일~5월31일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전년도 (17.1.1~12.31)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가구소득 중 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인 : 아내명의 신청원칙(배우자, 직계존속 대리가능)

- **제출서류**
 -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부
 -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각각) 1부,
 - 신청인(아내명의) 통장사본 1부,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14만원(차등지원), 3년간 지원
※여성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 추가

소득구간별 지원액		(단위 : 천원)
기준중위소득		지원액 (월)
기 준	소득금액(2인)	
100%이하	~2,847	120
100%초과~150%이하	2,848~4,270	80
150%초과~200%이하	4,271~5,694	50

□ **문 의**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 033-670-2162

하루10% 물절약하면, 1년이면 팔당댐이 2개 가뭄극복을 위한 물절약 실천방안

양치컵 사용하기!
양치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면
4.8L 물 절약

빨래 모아서 하기!
빨래를 한 번에 모아서 하면
20~30% 물 절약

수압밸브 조절하기!
수압밸브를 조절하면
20~30% 물 절약

샤워시간 줄이기!
샤워시간을 1분 줄이면
12L 물 절약

비누칠 할 때 문잠그기!
비누칠 할 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씻으면
6L 물 절약

설거지 할 때 온 물 받아서 하기!
설거지 할 때 물을 받아서 하면
74L 물 절약

헤드폰을 재사용하기!
헤드폰을 여러번 쓰고
청소할 때 사용하면
20% 물 절약

2.5억톤 팔당댐이 두개!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용도폐지) 이렇게 추진됩니다

부지 매각은 소유권자인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시행
우리군은 토지 조사 후 기획재정부에 소유권을 이관하는 역할 수행

- 구 동해고속도로가 2015.3.10일 도로구역에서 해제 결정되면서 재산관리청이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경작해 온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매각도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 그동안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임대업무를 대행해 온 우리군은 토지 실태조사 후 기획재정부에 토지소유권을 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임대, 매각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군은 주민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94필지 378,951㎡ 1차 용도폐지 완료 : '18년 1월
- 2차 용도폐지 대상 토지(386필지, 768,407㎡)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중

향후 추진계획

□ 2차 용도폐지 대상토지 실태조사(추진중)

- 2차 용도폐지 대상은 일반주민들이 경작지로 사용하던 386필지 768,407㎡로서,
- 이 가운데 공공용 또는 행정목적 재산으로 사용 중인 토지나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포함되는 토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이런 토지는 별도의 절차 없이 우리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게 됨.
- 그 외 나머지 토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게 됨

□ 기획재정부로 관리청 이관(6월말)

- 실태조사가 완료된 토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며,
- 그 이후부터 구 고속도로 부지의 임대 계약, 매각 신청·접수 등은 양양군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하므로 자산관리공사의 일정에 맞추어 개별 신청해야 함.

□ 용도폐지 추진 흐름도



□ 용도폐지 업무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 토지실태조사 등 용도폐지 업무총괄
- 실과소 : 행정재산으로 사용·계획 중인 토지 현황자료 제출
- 한국자산관리공사 : 재산관리(대부, 매각 등) 관련업무 처리

<수의매각 조건 및 추진내용>

-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
- 규정내용 :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 가능
-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작자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 후 계약할 수 있도록 협의 및 건의 중임
- 대상 : 최초 경작자 사망 후 사용허가 미승계, 경작자 변경 후 변경 사용허가 미이행,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허가 미이행 등
- 조치사항 : 무단경작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 후 수의 계약 가능토록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 인 협의 및 건의

2017년 우리군 발생폐기물 처리에 따른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	타는 쓰레기	소각량	타시군 위탁량	처리비	보관량
2015	11,465	9,041	923(태백시)	58억원	4,700
2016	13,244	9,074	1,015(속초시)	61억원	
2017	13,055	9,124	383(속초시)	64억원	

※ 2017년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 및 기타 : 6억원

	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기		비 1회용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
	세 일반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넷 안듯,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은 재활용 · 재사용 하기
	다 종이는 이물질이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비닐 · 플라스틱과 분리 배출하기		여섯 플라스틱은 은백색이나 붉 두껍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하기
	일곱 캔과 유리병류는 플라스틱 등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하기		여덟 고열은 플라스틱 등 이물질과 여유치 않게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기
	아홉 음식은 남지 않게 요리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열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기



27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
Paralympic mascot Bandabi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3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Para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3.9-3.18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